4.3 비극 70년… 화해와 상생으로 '치유'

제주4.3 관련 국가 · 불교계 추념행사 잇달아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피와 비명소리로 얼룩진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달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불교계서도 추도 물결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를 찾았고, 광화문에선 불교계 영산재가 엄수됐다.

1948년부터 70년을 가로지른 2018년 4월 3일,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화해와 상생 · 평화 · 인권으로 나아가는 4.3사건 추념식과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이 방문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2006년 노무현 前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는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조계종이 함께 '제주4.3 70주년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재'를 봉행했다.

제주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4.3의 통한과 고통, 진실을 알려온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4.3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4.3희생자, 불교가 어루만지다

4.3사건은 미확인 희생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명 피해만 2만5000~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불교계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때 스님 16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사찰 37곳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18곳은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스님들은 사찰 경내에서 총살을 당했고, 수장이나 고문에 의해 죽은 스님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 문화재급 불

4월 3일 설정 스님 제주 방문
같은 날 광화문서 추모 영산재
교구본사선 추모 현수막 · 기도
"제주도민에게 평온함 오기를"

상과 탱화는 이때 거의 소실됐다. 이웃 종교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은 4월 3일 광화문서 희생자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극락왕생 발원의식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세워진 분향소 무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이수자 동환 스님 등 스님 6명의 집전으로 1시간가량 치러졌다. 이날 영산재에는 직접 제주도를 찾은 설정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참석했다.

설정 스님은 정우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제주의 아픔은 깊은 고통을 오랜 세월 시대와 사회에 남겨놓았다. 먼저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국민적 화해와 상생,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화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영산재는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일 뿐 아니라 제주 4.3의 아픔으로 숨죽여 살아온 제주도민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돼 평온함이 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교구본사도 4.3사건에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각 사찰들은 4월 말까지 4.3사건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를 진행한다.

이 같은 불교계의 제주4.3사건 위로활동은 당시 제주불교계 피해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제주불교계는 세미나와 연구를 실시하며 과거사를 조명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우 스님이 4.3 희생자 영단에 분향하는 모습.

4.3이 머우꽈? (무엇입니까?)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돼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당시 무장대원 350여 명은 제주지역 경찰지서 24곳 가운데 12개 지서를 공격했다. 이날 습격으로 경찰관 4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했다. 이것이 '제주 4.3사건'의 시발점이다. 1948년 10월 제주 토벌군으로 파견하려던 군병력이 반기를 든 '여순사건'이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은 커졌다. 중간산(해발 200~600m) 마을 95% 이상이 불탔고, 이듬해 3월까지 3만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 중 80%가 사망했다.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회향 널리 닦은 공덕을 이웃에게

회향(廻向)은 자기가 닦은 선근공덕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자리이타행입니다. 자기의 모든 공덕과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즐겁게 하고 병고가 없게 하며 착한 일은 쉽게 성취하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회향은 보시와 공양과 발원의 공덕의 힘을 이웃과 자신이 함께 깨달음을 얻는데 쓰는 '공덕 나눔'입니다.

절에서는 정월기도나 화엄산림법회 같은 대법회와 불사를 마무리 할 때 성취한 것을 널리 베풀기 위해 회향법회를 엽니다. 기도나 불사의 공덕을 여러 이웃과 공유하는 의식입니다.

통에 담아 이름도 밝히지 않고 회향했습니다. 그 온정을 받은 이웃들의 감사는 '회향의 향기'입니다. 회향은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공덕을 나눔으로 모든 존재와 착한 관계를 맺고 행복을 가꾸는 사랑입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과 청정한 게송을 읊자 선재동자와 여러 보살들은 기뻐 어쩔줄 몰라 했고, 부처님은 "그렇다. 그렇다"고 찬탄하셨습니다.

'모든 공덕과 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리라' 보개회향원(普皆廻向願)으로 마무리하는 보현보살 10대원의 게송 일부분을 다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제목 · 회향-자연 그림 · 조향숙

"훌륭한 복 다 돌려주어
끝없는 이웃에 이익주리"
자리이타의 '공덕 나눔'

"지혜와 행 널리 닦은 공덕의 힘
위신으로 덮어주는 자비의 힘
깨끗하게 장엄한 복덕의 힘
집착없고 의지없는 지혜의 힘
원만하게 쌓아 모은 보리의 힘

불교의 모든 의식과 법회는 사홍서원으로 회향합니다. 자기수행 공덕을 이웃에게 돌리는 자리이타 보살행을 완전히 실천하여 함께 성불할 것을 서원하는 회향의식입니다.

*해마다 낙엽이 떨어져 새 봄에 새싹을 틔우는 거름이 되듯, 회향의 공덕은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식모살이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하고 운명한 어느 할머니의 '회향의 공덕'은 그 재산으로 지은 연구실과 장학생들을 통해 오래오래 이어가며 꽃을 피웁니다.

울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40년 모은 저금통 2백여 개를 이웃돕기에 내놓았어요. 저금통에는 5천 1백여 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40년간 보시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 발원하는 마음을 2백여 개 저금

보현행을 원만하게 닦은 힘으로
한량없는 이웃들을 해탈케 하며
그지없는 법문을 분별 잘하여
지혜바다 깊이 깊이 들어가리라.

오래잖아 보리수 아래 앉아서
여러 가지 마군들을 항복받나니
정각을 성취하고 법을 설하여
끝없는 이웃들에 이익 주리라

바라건대 보현보살 거룩한 행
그지없이 훌륭한 복 다 돌려주어
삼계 고해 빠져있는 모든 이웃들
평화로운 정토에 어서 가소서"

불자 여러분, 이제 회향의 삶을 합장 발원합시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정혜사 소유권 분쟁 수덕사 최종 승소

덕숭총림 산내암자 정혜사 부지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선학원과 수덕사 간 법적공방이 수덕사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는 3월 29일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결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종단채무 완전 해결"… 새출발 다짐

채무 20억 원 전액 상환, 종정 특별담화문도

태고종이 과거 종단분규사태 원인이었던 부채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3월 30일로 국민은행 채무 2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 원금 20억 원에 대한 누적이자 30억 원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탕감받았다"며 "운산 총무원장 재임 시 발생한 종단 부채를 말끔히 상환해 태고종은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4월 4일 발표했다.

앞서 前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재임 시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건립비용을 국민은행에 대출받고자 태고종 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봉원사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종단 부채가 발생했다. 이후 선출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보증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도리어 태고종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다음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부채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채무발생 책임자인 운산 스님과 인공 스님을 멸빈 징계에 처했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책임공방이 폭력 분규사태로 번져 세간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태고종은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종단 채무상환에 총력을 기울여 종단 부채를 완전히 갚게 됐다. 다만 봉원사 연지원 관련 S상호저축은행 원금 5억 원과 이자 5억5000만원은 일괄 타결을 진행 중"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태고종은 이어 "종단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과 함께 제2창종정신으로 새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1만 종도, 4천 사암을 포용한 한국불교 선두종단으로서 불교 중흥과 종단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4월 2일 특별담화문을 내고 "태고종도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종단 발전과 태고종승 선양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종단 부채를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종도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엄중히 다스려줄 것을 하명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